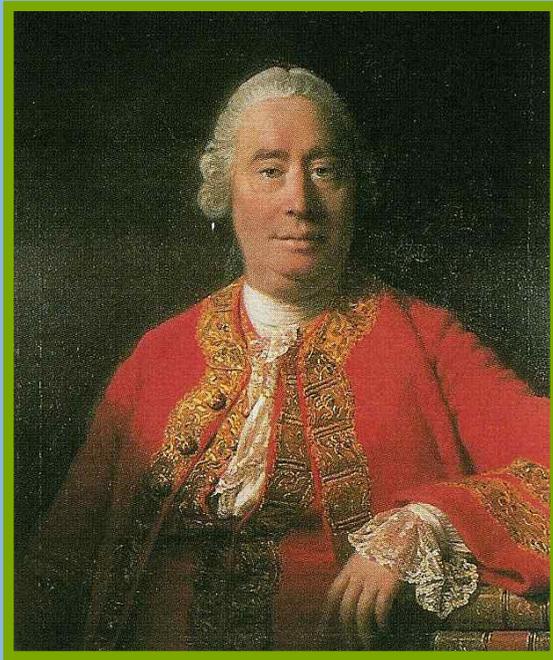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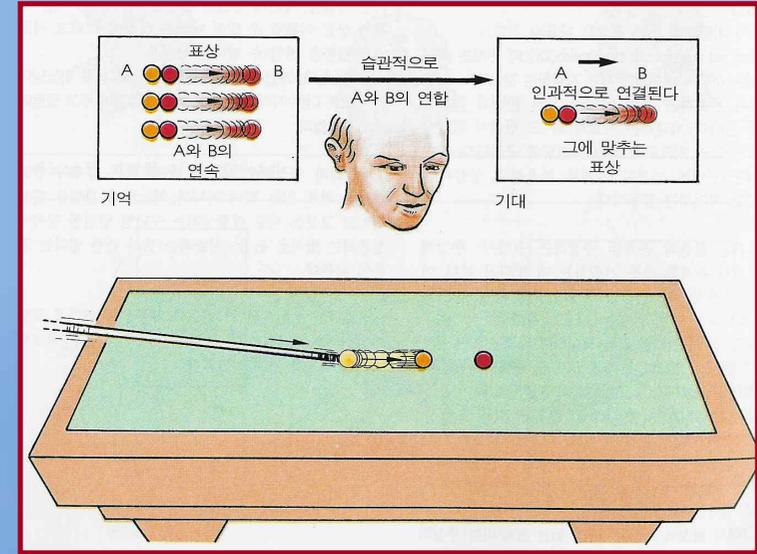
D. Hume, 1711-1776



장 라우, '거울보는 소녀(172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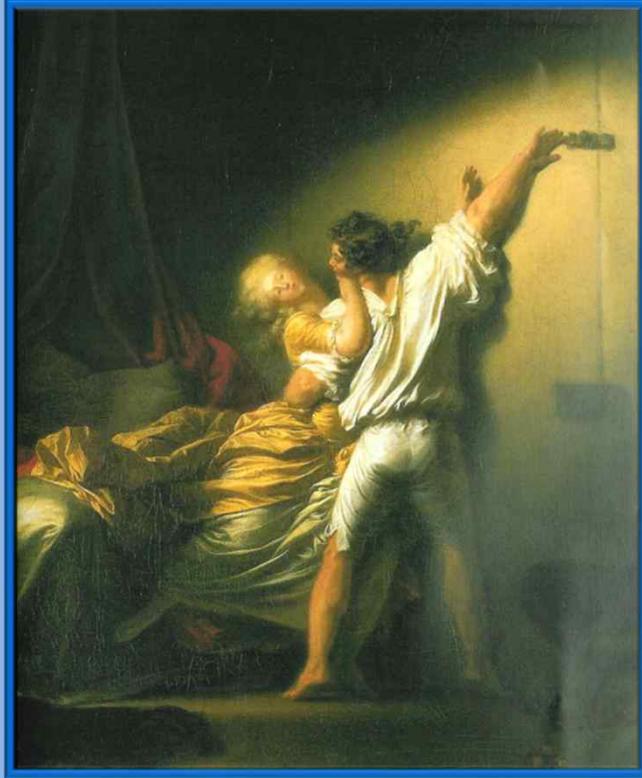
“나약한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면, 그는 이 나약함이 허락하는 한 ‘완벽하게 지혜롭고 유덕한 사람’이라는 이상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.” — A. Smith—

인과율?: 원인과 결과 - 18세기 영국인들의 당구



‘귀납 추론’과 ‘개연성’만이 존재

습관적으로 A위치 → B위치로 이동 (인과)추론
관념 연합의 법칙 : 사실의 진리로 파악



장 오노레 프라고나르, '빛장' (1777) : 정념, 정서, 욕구

도덕성의 근원 : 대상에 대한 정서 반응: 쾌/혐오

만약에 내가 맛있는 것을 욕구하는데 그것이 나의 체중을 늘어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, 더 이상 체중을 늘어나게 하지 않으려는 나의 욕구가 그 단것에 대한 나의 욕구에 대해 반작용을 일으킬 것이다. 따라서 이성
은 의지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 결코 정념
과 상반될 수 없는 것이다.



추론 지식
(정보제공)
= 이성 =

정보(지식)에 대한
정서반응
= 정념(욕구) =

행위의
동기

이성 : 정념의 노예

“이성은 정념의 노예일 뿐이고, 단지 노예일 뿐이어야 한다. 이성은 정념에 봉사하고, 복종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임무도 탐내서는 안된다.”

“이성은 무기력하며, 양심이나 도덕감, 또는 행위에 결코 영향을 미치는 근원이 될 수 없다.” 정념이 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. 따라서 도덕적 신념은 이성이 아닌 감정과 욕구들의 결과이다. “도덕은 정념을 자극하여 어떤 행위를 산출하거나 억제한다. 그러나 이성은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힘도 발휘 못한다.”



도덕적 정서 : 판단이 아니라 느낌이다.



“덕과 악덕의 차이는 대상에 대한 정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. 도덕성은 판단되기보다 느껴진다고 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.” 결론적으로 도덕적 구별, 즉 선과 악은 “도덕감에서 도출된다.” “고귀하고 관대한 행위는 가장 정당하고 아름다우며, 잔인하고 배반적인 행위는 가장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.”

X 행위에 대한 정서

A의 승인

B의 승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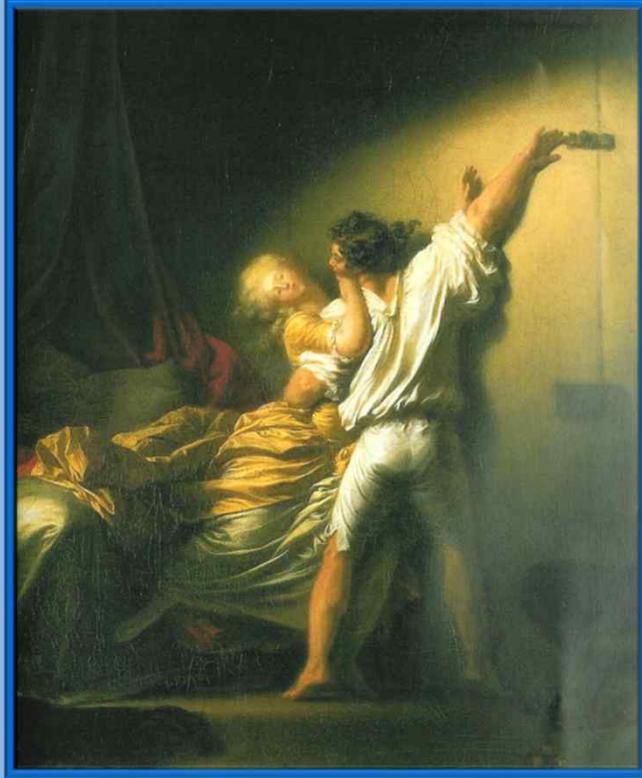
C의 승인

∴

그러므로 **도덕성**

“공감과 승인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유용성” ⇨ 덕/악덕 행위의 기준

“제3자에게 기쁜 공감을 주는 것은 무엇이든 덕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, 그 반대는 악이다.”



장 오노레 프라고나르, '빛장' (1777) : 정념, 정서, 욕구